목포시, 소상공인 총력 지원 '경제 활력' 되찾는다

지역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맞춰 시너지 극대화
공공배달앱 '먹깨비' 중개수수료 인하…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비 설치

목포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에 맞춰 시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시기적절하게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은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골목형 상점가 지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경영지원 등 6가지다.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은 총 465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며, 9월부터는 할인율을 기존보다 높인 13%로 적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민간배달앱의 중개수수료(2.0~9.7%)보다 낮은 1.5%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시는 가맹점 확대와 함께 목포항구축제 등 가을 축제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무인 판매기, 서빙 로봇 등 디지털 장비 설치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00㎡ 이상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상점가 주변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4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 업소 모집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지정 업소에는 운영 물품과 공공요금 등이 지원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경영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세미나도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는 전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들이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 상권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 어르신들, 카톡·QR코드 활용도 '척척'

해남군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참여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읍·면 등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호응…누구나 무료 참여

"이젠 영상통화도 너무 쉽게 걸 수 있어요."

해남군이 정보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월부터 지역 읍·면 마을회관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보다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카카오톡 사용법, 사진·영상 촬영, QR코드 활용, 알람 설정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은 전담 강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지도를 병행하며, 스마트폰 기초 조작부터 단계별로 진행된다. 특히 반복 실습 중심의 수업은 '이해하기 쉽고 부담이 없다'는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휴대폰은 전화 통화만 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식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 보낼 수 있어 신기하고 즐겁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군은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디지털 격차는 곧 생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르신과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폭염에도 청초한 자태 '여름새우란'

신안군, 12~17일 압해읍 황해교류박물관 특별전

신안군이 무더운 여름에 청초한 자태를 뽐내는 여름새우란 특별 전시회를 오는 12~17일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내 황해교류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여름새우란은 난초과 식물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지닌 국내 자생식물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새우란들이 주로 봄에 개화하는 것과 달리, 여름새우란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꽃을 피우는 유일한 새우란 원종이다. 특히 제주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꽃꼬리가 없고 떡잎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독특한 생장 양상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신안군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여름새우란 원종 100여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풍란, 흑산도 비비추 등 신안군 섬 지역의 다양한 도서 자생식물들도 함께 전시돼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멸종위기 자생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름새우란의 개화를 기념하기 위해 새우란 소재 기념품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긴꼬리새우란.

"영암형 통합돌봄 배우자" 지자체들 발길 '북적'

공백 없는 돌봄…진도·화순·고흥군 등 공무원들 정책 운용 현장 견학

전남 지역 기초지자체 공직자들이 영암군민의 일상을 지지하는 '영암형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잇달아 영암을 찾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2026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영암형 통합돌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진도군과 화순군 복지 공직자 등이 영암군을 방문해 통합돌봄추진단 등 통합돌봄 정책 운용 현장을 둘러봤다. 일주일 전인 23일에는 고흥군과 목포시 복지 공직자들도 영암 복지를 살폈다.

영암군은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통합 사례TF'를 신설하며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부터는 통합돌봄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민 누구나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틈새이음 영암 돌봄 사업'으로 병원, 행정기관 방문 동행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복지·돌봄 분야 칸막이를 낮추고 매주 1회 정기 복지 부서와 유관기관 '통합돌봄 협업 회의'로 군민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형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돌봄을 공동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라며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은 통합돌봄 체계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평생교육 상반기 2700명 참여

찾아가는 문해 교실·디지털 학습 기기 지원 등

완도군 상반기 평생교육원 개강식.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배움과 상생으로 연결되는 모두의 학습, 섬 완도'라는 비전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완도군은 상반기에 평생교육원, 성인 문해 교육, 찾아가는 문해 교실 운영 및 글로컬 대학 협력사업, 전남형 평생 학습, 디지털 학습 기기 지원 등 7개 사업과 15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군민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2월에 연간 및 세부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매년 4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정보기술(ITQ) 과정과 홈 바리스타, 악용식물 관리사, 현대인의 건강관리, 요가, 삼도설장구 등 자격증과 인문 교양, 문화예술, 여가 등 81개 강좌에 1484명이 참여했다.

3월에는 교육부 주관하는 '성인 문해 교육'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60개 문해교실 운영, 577명에게 기초와 디지털, 생활, 금융 교육, 체험 학습 등을 지원했다.

순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세계 지역화(글로컬) 대학 협력 사업인 심리 상담사 등 자격증 과정과 '전남형 평생 학습 지원 사업'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도비를 지원받아 도서 지역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금일, 노화 지역에 키오스크를 지원해 디지털 소외계층 기초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교육 강사와 행복 학습 매니저와 문해 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전남교육청 '꿈키움 교육수당' 공동 추진

중·고등생 월 10만원 바우처 지급
13~18세 청소년 교육 복지 강화

진도군과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30일 청소년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꿈키움 학생교육수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과 전남도교육청이 청소년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최근 진도군청에서 '꿈키움 학생교육수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내년 3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다.

사업 재원은 진도군과 전남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며, 이 같은 형태의 협약은 전남도내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바우처 사업을 '꿈키움 학생교육수당'으로 개편하고, 지역 청소년의 교육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비롯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진도군이 청소년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합니다"

다음달부터 위기가구 조기발견·지원…건당 5만원 포상금

영광군이 내달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생계 곤란,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위기가구'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선정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지급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 기존 복지급여 수급가구 신고자,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역사회가 함께 찾아내자는 취지로 포상제도를 도입했다"며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